

# numbers 제 62호



## 주요 내용

2020. 09.04

1. 이번 주 주제 : [환경 문제 인식]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2.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3. 넘버즈 칼럼 : 재난 시대와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http://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 일반 사회 통계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아동문학가 이오덕 선생님의 책에서 재직했던 초등학교의 아이가 그린 탄광촌 그림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그 그림은 개울물을 시커멓게 그려 놓았었다. 탄광에서 흘러나오는 개울물이 맨 날 검은 물이니 개울을 검게 그리는게 그 아이에게는 자연스웠던 것이다.

요즘 대도시 도심에서 맑고 푸른 하늘은 찾아보기 쉽지 않는 풍경이 되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나아졌다고 해도 우리가 늘상 보는 하늘은 부연 먼지로 가득차서 저 멀리 있는 산들도 잘 보이지 않는다.

몇 년 전「목회와신학」에서 한국 개신교인의 신앙 수준을 측정하는 조사를 진행하는데 프로젝트팀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다. 미국의 지표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한 조사였는데, 한 개인의 신앙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 환경 문제 인식에 대한 지표가 있었다. 그 때 개신교인의 신앙에 환경 인식도 들어가는구나 하고 놀랐던 기억이 있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크리스천으로서 환경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한 번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점점 기후 환경 문제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걱정거리가 될텐데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스] 62호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또 개신교인들은 환경 문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 62호는 우리국민의 환경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에는 전 세계적인 기후환경 문제를 다뤄볼 계획이다. 이 보고서가 환경 문제를 다 담을 수 없지만 한국 교회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사회적 주체가 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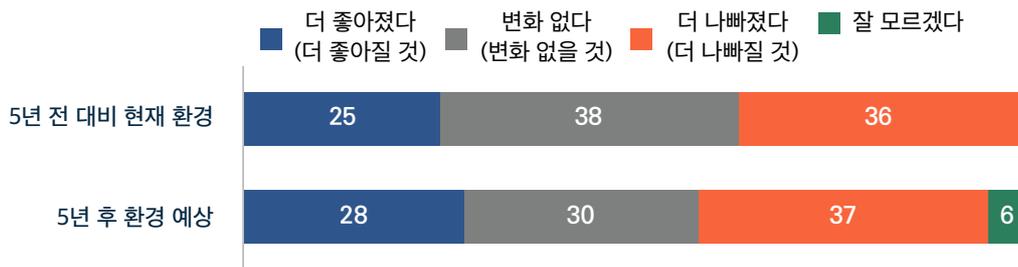


## 한국인, 미래 환경에 대해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 높아

- 2018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5년 전보다 현재 환경 문제에 대해 ‘좋아졌다’(25%)는 인식보다 ‘나빠졌다’(36%)는 인식이 더 높는데, 향후 5년 후 역시 현재보다 ‘좋아질 것’(28%)이라는 의견보다 ‘나빠질 것’(37%)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높음

[그림] 환경 상황 인식 변화

(%)



\*자료 출처 : 통계청, '2018년 사회조사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2018.11.06. (전국 25,843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9,000명, 2018.05.16.~0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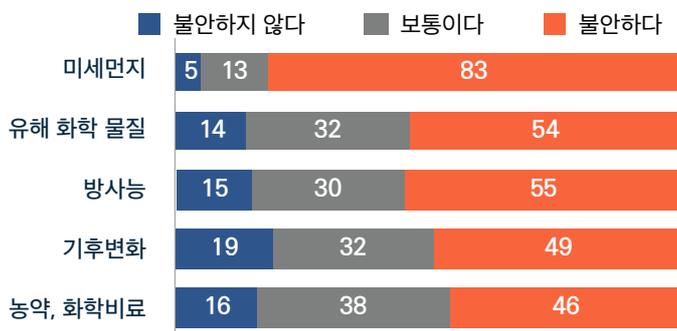
\*\*더 좋아졌다 : 매우+약간, 더 나빠졌다 : 매우+약간

## ● 현재 환경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안감 높아

- ‘미세먼지, 유해 화학 물질, 방사능, 기후변화, 농약/화학 비료’ 등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 중 미세먼지에 대해 가장 불안감(83%)이 높음
- 전반적으로 환경 상태 만족도는 ‘만족’ 8%, ‘보통’ 49%, ‘불만족’ 43%로 불만족이 만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그림] 환경 문제에 대한 불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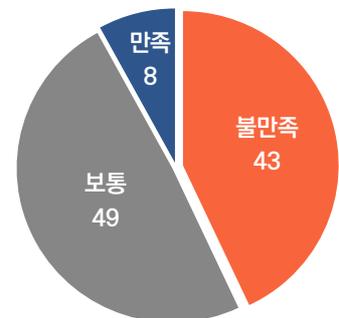
(%)



\*자료 출처 : 통계청, '2018년 사회조사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2018.11.06. (전국 25,843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9,000명, 2018.05.16.~05.31)

[그림] 전반적인 환경 상태 만족도

(%)



\*자료 출처 :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환경·경제 통합 분석을 위한 환경 가치 종합 연구 별책 부록: 2019 국민환경인식조사', 2019.12.31.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3,008명, 온라인 조사, 2019.10.08.~25)

\*\*만족 : 매우+약간, 불만족 : 매우+약간

2



##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 1위, '대기질(미세먼지 등)' 47%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019 국민환경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로 우리나라민은 미세먼지/오존 등의 '대기질' 문제(47%)를 1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기후변화 피해' 22%, '쓰레기 증가 문제' 9%, '수질 개선' 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 (1순위, 상위 7위) (%)



\*자료 출처 :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환경·경제 통합 분석을 위한 환경 가치 종합 연구 별책 부록: 2019 국민환경인식조사', 2019.12.31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3,008명, 온라인 조사, 2019.10.0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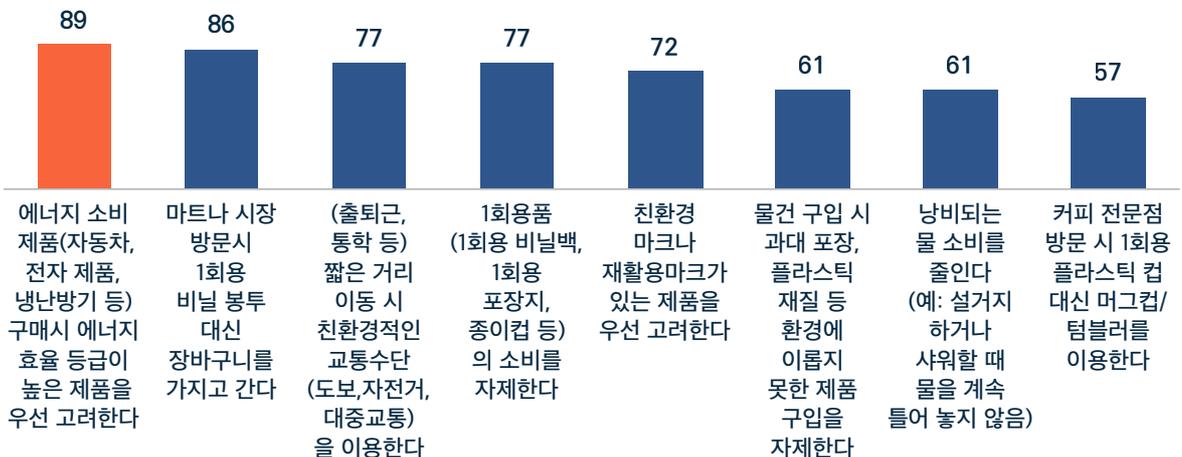
3



## 환경보호를 위해 하는 행동, '에너지 효율 등급 높은 제품 선택' 89%

-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8가지를 제시한 후 활동 여부를 측정해 본 결과, '에너지 효율 등급 높은 제품 선택' 이 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마트/시장 방문시 장바구니 사용' 86%, '짧은 거리 이동 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77% 등의 순으로, 우리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여러가지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중복 응답) (%)



\*자료 출처 :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환경·경제 통합 분석을 위한 환경 가치 종합 연구 별책 부록: 2019 국민환경인식조사', 2019.12.31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3,008명, 온라인 조사, 2019.10.0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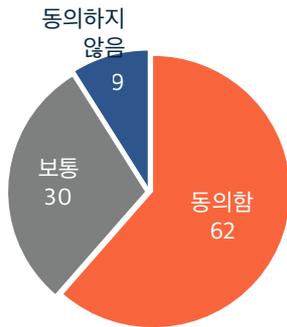
## ● ‘나는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62%

- 우리 국민은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환경 관련 정보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나는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2%였고, 환경 정보가 ‘충분하다’는 의견은 11%에 지나지 않아 환경보호 관련 정보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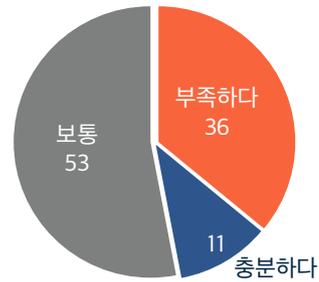
[그림] 환경 정보에 대한 인식

(%)

“나는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더 많은 환경 정보가 필요하다”



환경 정보 충분 여부



\*자료 출처 :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환경·경제 통합 분석을 위한 환경 가치 종합 연구 별책 부록: 2019 국민환경인식조사, 2019.12.31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3,008명, 온라인 조사, 2019.10.08.~25)

\*\*충분하다 : 매우+약간, 부족하다 : 매우+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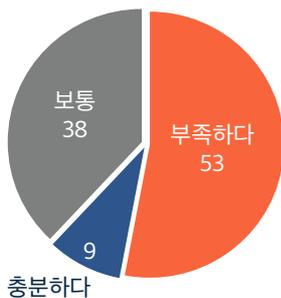
## 4



## 홍수 조절 및 예방 사업, '충분하다' 9%, '부족하다' 53%

- 하천 정비, 수문 관측 시설, 댐/보 건설 등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의 홍수 조절 및 예방 사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충분하다' 9%, '부족하다' 53%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훨씬 높음
- 이 결과는 2019년 조사 결과인데, 이런 국민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큰 홍수 피해를 겪었는데, 향후 정부의 보다 더 치밀하고 전략적인 홍수 조절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홍수 조절 및 예방 사업 평가 (%)



\*자료 출처 :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환경·경제 통합 분석을 위한 환경 가치 종합 연구 별책 부록: 2019 국민환경인식조사, 2019.12.31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3,008명, 온라인 조사, 2019.10.08.~25)

\*\*충분하다 : 매우+약간, 부족하다 : 매우+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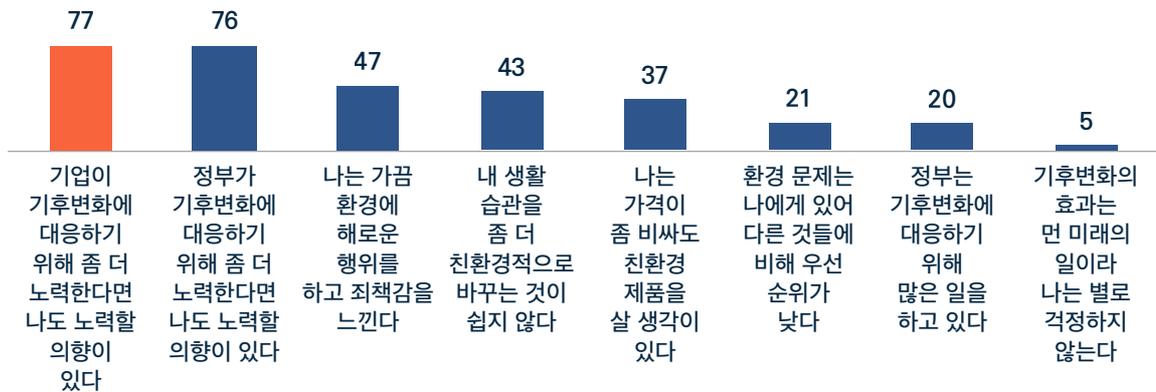
5



## 우리 국민 4명 중 3명 이상, 기후변화 대응 주체로서 '정부/기업이 노력하면 나도 하겠다!'

- 환경 관련 의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동의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기업 또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한다면 나도 노력할 의향이 있다'는 인식이 4명 중 3명 이상으로 나타나, 기후변화 대응 주체로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
- 한편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율이 20%에 지나지 않아 정부의 기후변화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음

[그림] 환경 의식/태도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율 (%)



\*자료 출처: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환경·경제 통합 분석을 위한 환경 가치 종합 연구 별책 부록: 2019 국민환경인식조사, 2019.12.31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3,008명, 온라인 조사, 2019.10.08.-25)

\*\* 동의율: (매우+약간) 동의한다

## ● 국가 발전 수준 평가 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46%

-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평가할 때 경제, 사회, 환경 중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세가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적 기준' 21%, '사회적 기준' 19%, '환경적 기준' 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우리나라 발전 평가에서 중요 기준 (%)



\*자료 출처: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환경·경제 통합 분석을 위한 환경 가치 종합 연구 별책 부록: 2019 국민환경인식조사, 2019.12.31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3,008명, 온라인 조사, 2019.10.0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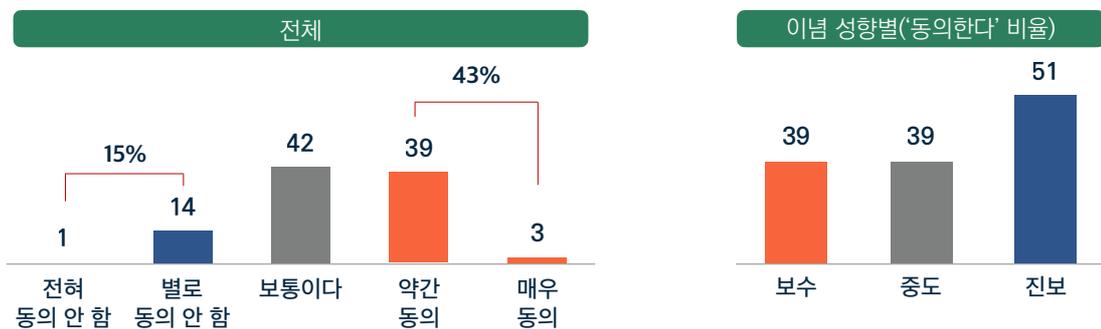
6



## 우리 국민, 환경보호를 위해 경제 성장 포기 의견 높아

- 환경과 경제 성장은 항상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이슈인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 성장을 일정 부분 포기할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 '동의한다' 43%, '보통' 42%, '동의 안 한다' 15%로, 환경보호를 위해 경제 성장을 포기하겠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 환경보호를 위해 경제 성장을 포기하겠다는 의견은 이념 성향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진보' 성향 국민이 포기 의향률이 가장 높음

[그림] '환경보호를 위해 경제 성장을 일정 부분 포기하겠다' 동의 여부 (%)



\*자료 출처 :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사업보고서, '환경·경제 통합 분석을 위한 환경 가치 종합 연구 별책 부록: 2019 국민환경인식조사', 2019.12.31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3,008명, 온라인 조사, 2019.10.08.~25)

\*\* 동의한다 : 매우+약간

7



## 중앙정부, 환경보전 노력 '잘 하고 있다' 9%

- 환경보전의 책임이 있는 각 주체에 대해 환경보전 노력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한 결과, '시민 단체'가 23%로 가장 높고, 주된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는 9%는 매우 낮게 평가함
- 한편, 환경보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정부'(39%)가 '국민'(35%)보다 약간 높으며, 그밖에 '기업' 17%, '지방자치단체' 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은 중앙정부와 국민 자신이 공동으로 환경보전 책임이 가장 큰 주체이지만 둘 다 환경보전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 환경 운동을 설득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림] 주요 주체별 환경보전 노력 평가 ('잘하고 있다') (%)      [그림] 환경보전 책임이 가장 큰 주체(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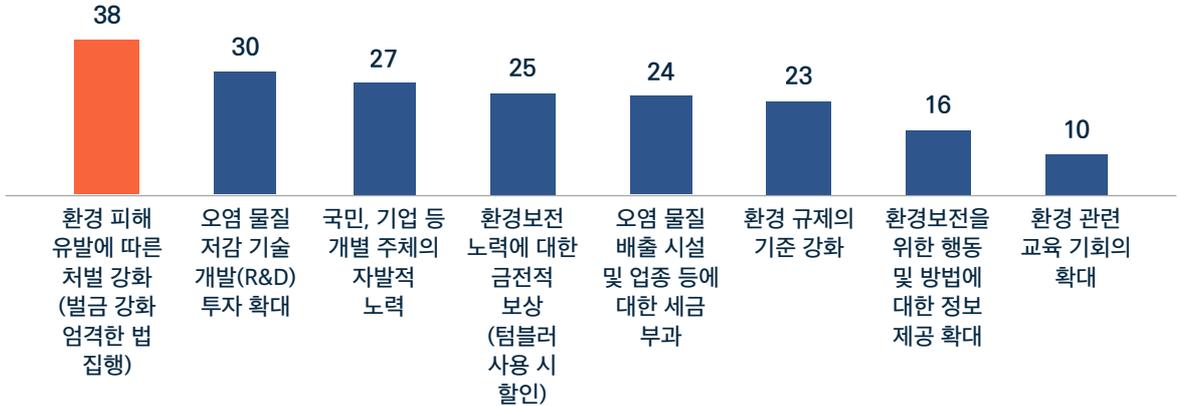
\*자료 출처 :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사업보고서, '환경·경제 통합 분석을 위한 환경 가치 종합 연구 별책 부록: 2019 국민환경인식조사', 2019.12.31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3,008명, 온라인 조사, 2019.10.08.~25)

\*\*잘하고 있다 : 5점 척도 문항이며, 그 중 '매우+약간' 비율임

## ●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1위, ‘처벌 강화’

-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환경 피해 유발에 따른 처벌 강화’가 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오염 물질 저감 기술 개발 투자 확대’ 30%, ‘국민, 기업 등 개별 주체의 자발적 노력’ 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1+2순위, 상위 8위) (%)



\*자료 출처 :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사업보고서, ‘환경·경제 통합 분석을 위한 환경 가치 종합 연구 별책 부록: 2019 국민환경인식조사, 2019.12.31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3,008명, 온라인 조사, 2019.10.08.~25)

이상으로 일반 국민의 환경인식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개신교인들의 환경 인식에 대해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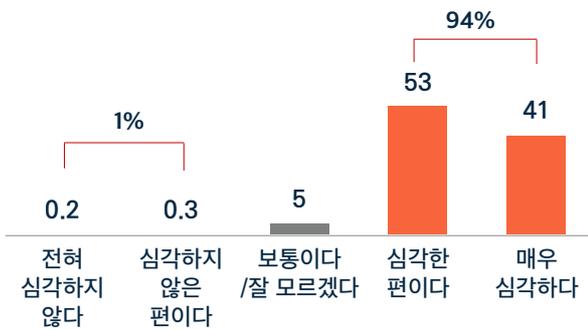
8



## 개신교인의 환경 문제/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심각하다' 94%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2019년 한국인의 사회의식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절대 다수(94%)가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도 41%로 나타남

[그림] 환경 문제/기후변화 심각도(개신교인)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인의 사회의식에 관한 조사' 2019.11.15. (전국 만 20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19.07.08.~19)

## ● 개신교인, 환경보호/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실천으로 '웁길 의향 있다' 91%

-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실천으로 웁길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향이 있다'는 개신교인이 무려 91%로 나타남
-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생활 환경 악화 요인'(35%)과 '인간도 자연 환경의 일부'(34%)라는 인식이 높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환경보호/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실천 의향 (개신교인) (%)



[그림] 환경보호 이유(개신교인,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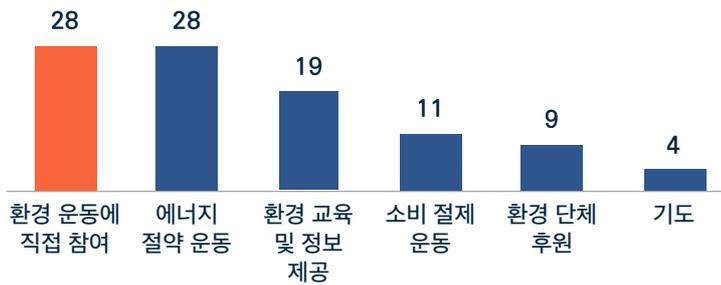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인의 사회의식에 관한 조사' 2019.11.15. (전국 만 20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19.07.08.~19)

## ● 지구 환경 관련 교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 '환경 운동 참여', '에너지 절약 운동'이 가장 높아

- 개신교인들은 지구 환경 관련 교회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로써, '환경 운동 참여'(28%)와 '에너지 절약 운동'(28%)를 비슷하게 가장 높게 꼽았고, 다음으로 '환경 교육 및 정보 제공' 19%, '소비 절제 운동' 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응답은 개신교인들이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활동적인 운동에 대해 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지구 환경 관련, 교회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 (개신교인, 상위 6위) (%)



\*자료 출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인의 사회의식에 관한 조사' 2019.11.15. (전국 만 20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19.07.08.~19)



## 시사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요즘은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다. 그런데 마스크 사용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봄, 가을이면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때 목이 칼칼해지고 가래가 생기는 경험을 하면서 일상화되기 시작했다. 환경 문제는 쓰레기, 자연 오염 등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미세먼지’이다(3쪽 참조). 다른 환경 문제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내가 피하면 되는 문제지만 미세먼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므로 어떤 환경 문제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미세먼지의 주 발생 원인은 화석연료(석유, 석탄 등)가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탄소와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 등 대기 오염 물질로 알려져 있다. 즉 인간의 안락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미세먼지인 것이다. 코로나19도 인간의 개발이 부른 참사라고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각종 질병들인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와 지금 진행 중인 코로나19는 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인데, 인간이 더 잘 살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면서 전에는 접촉할 가능성이 없던 동물과 접촉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 역할을 부여받았기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가꾸고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인간은 좀 더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청지기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창조 세계를 파괴하였다. 그 결과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그 댓가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인 된 것이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야 한다. 먼저 우리의 끝없는 욕망을 제어해야 한다. 더 편하고 더 잘 살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원한다. 쓰던 것을 버리고 새것을 구매하거나, 환경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쓰레기와 탄소를 배출한다. 무절제한 우리의 소비가 자연을 파괴하는 근본적 동기가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소비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또한 자연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청지기적인 가치관으로 수정해야 한다. 자연을 인간의 욕구 충족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한, 환경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인간도 자연과 같은 피조물이라는 인식에서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교회부터 환경을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이를 교회 내 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개신교인들도 이 운동을 원하고 있다(9쪽 참조).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사회적 환경 운동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며 후원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자연에 대한 청지기로서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도 설명했지만 환경 문제는 이념과 관련성이 있다. 진보 성향의 국민이 보수 성향의 국민보다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이 강하다. 교회는 앞에서 예시한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의 작은 환경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환경문제 관련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특히 진보 성향의 젊은층들을 끌어안는 데 1석 2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최근 언론 보도 통계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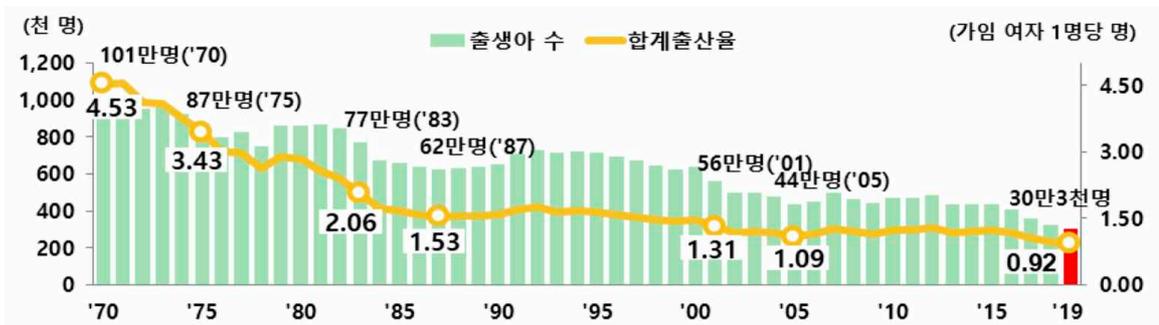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지난 8월 26일, 통계청에서 2019년 출생 통계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처음 1.0명 밑으로 떨어진 2018년 0.98명에 비해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생 통계 수치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임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작년 2사분기(0.92명)보다 8.7% 감소하여 또다시 최저 기록을 경신함

\* note) 합계출산율 :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그림] 연도별 합계출산율 추이(5년 단위)\*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출생 통계', 2020.08.26.

[그림]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 추이

(천 명, %)

연도	출생아수	전년대비 증감율	합계출산율	전년대비 증감율
2015년	438.4	0.7	1.24	2.8
2016년	406.2	-7.3	1.17	-5.4
2017년	357.8	-11.9	1.05	-10.2
2018년	326.8	-8.7	0.98	-7.1
2019년	302.7	-7.4	0.92	-6.0
2020년 1사분기**	74.1	-10.9	0.90	-10.9
2020년 2사분기	68.6	-9.0**	0.84	-8.7**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출생 통계', 2020.08.26. '2020년 6월 인구동향' 2020.08.26.

\*\* 2020년 자료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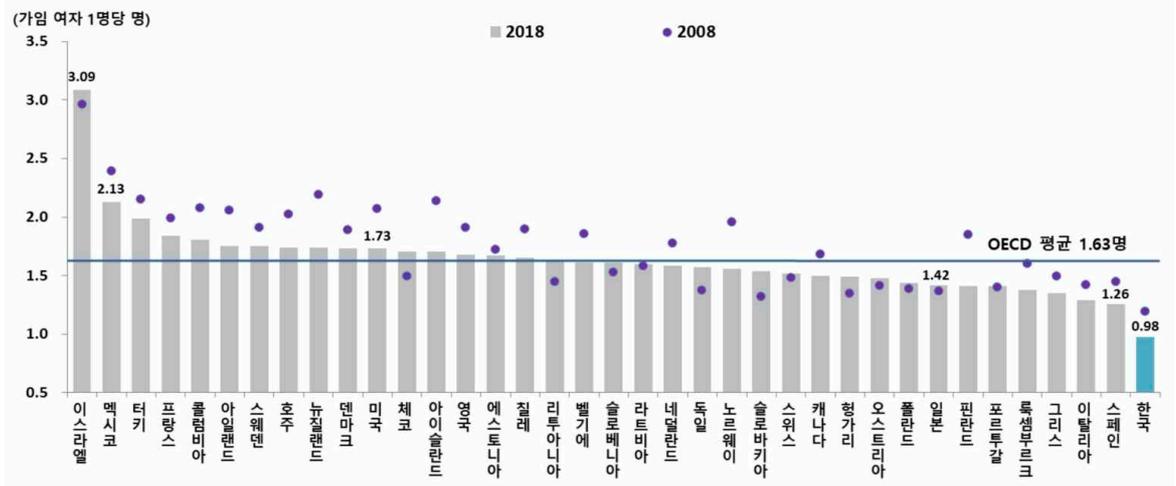
2



## 한국,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1.0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임

- 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으로 한국(0.98명, 2018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3.09명)임
-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1.0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함
- 주요국가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미국 1.73명, 영국 1.68명, 독일 1.57명, 일본 1.42명으로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그림]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비교(2008년 vs 2018년) (명)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출생 통계', 2020.08.26.

[표]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2018년) (명)

국가	합계 출산율	국가	합계 출산율	국가	합계 출산율
이스라엘	3.09	영국	1.68	헝가리	1.49
멕시코	2.13	에스토니아	1.67	오스트리아	1.48
터키	1.99	칠레	1.65	폴란드	1.44
프랑스	1.84	리투아니아	1.63	일본	1.42
콜롬비아	1.81	벨기에	1.61	핀란드	1.41
아일랜드	1.75	슬로베니아	1.61	포르투갈	1.41
스웨덴	1.75	라트비아	1.60	룩셈부르크	1.38
호주	1.74	네덜란드	1.59	그리스	1.35
뉴질랜드	1.74	독일	1.57	이탈리아	1.29
덴마크	1.73	노르웨이	1.56	스페인	1.26
미국	1.73	슬로바키아	1.54	한국	0.98
체코	1.73	스위스	1.52	(19년)	(0.92)
아이슬란드	1.71	캐나다	1.50		
OECD 평균 1.63**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출생 통계', 2020.08.26.

\*\* OECD 평균은 37개 회원국의 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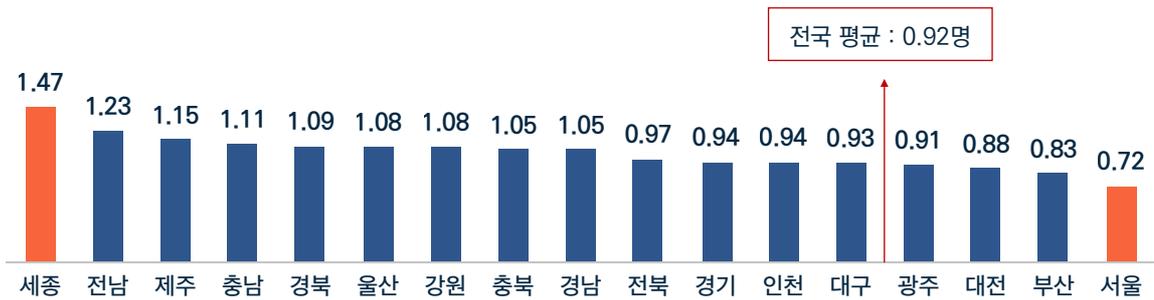


## 지역별 합계출산율(2019년), 1위 세종(1.47명), 최하위 서울(0.72명)

- 광역단체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1.47명)과 전남(1.23명) 순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0.72명)과 부산(0.83명) 순임
- 특히 서울의 경우 0.72명인데 전국 평균 0.92명보다 무려 0.2명이나 적어 서울의 출산율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대도시 지역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아 인구 밀도와 출산율이 (-) 상관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019년 전국 합계출산율(17개 시도별)

(명)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출생 통계', 2020.0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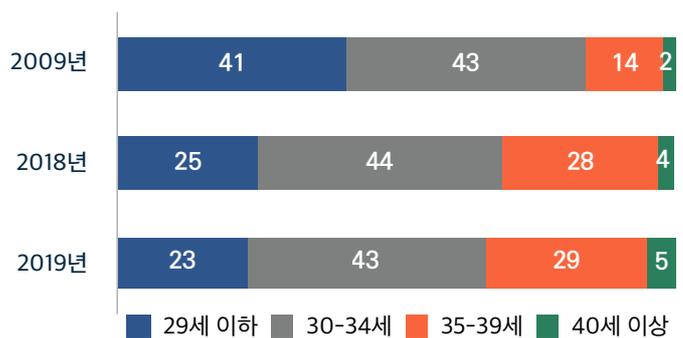
## ●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매년 증가 추세(2019년 33.0세)

- 2019년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0세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특히 35세 이상 비중이 34%로 10년 전(16%)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그림]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추이

[그림]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추이

(%)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출생 통계', 2020.08.26.



## 언론 보도 통계 큐레이션 및 이슈 큐레이션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코  
로  
나  
1  
9

[‘코로나 우울’ 방지하면 고위험 우울증 된다](#)

동아일보\_2020.09.03.

[60대 이상 NO마스크 문제로 인한 젊은층의 노인 기피 현상](#)

매일경제\_2020.08.28.

[“60세 이상 코로나 치사율, 운전하다 죽을 확률의 50배”](#)

조선일보\_2020.09.01.

[경찰 병원 급습? 이미 3단계?... 가짜뉴스 '창궐'](#)

세계일보\_2020.08.28.

[화난 보수층, 분노할수록 코로나 가짜뉴스 더 취약하다](#)

중앙일보\_2020.09.03.

[“국민 58%, 코로나 위기 상황 때 종교자유 제한 가능”](#)

연합뉴스\_2020.09.01.

사  
회

[라디오 타고 美 대중 사로잡아... BTS K팝 신기원 열다](#)

세계일보\_2020.09.01.

[“늙어가는 한국” 65세 이상 고령인구 1년 전보다 36만명 증가, 통계청 발표](#)

연합뉴스\_2020.08.28.

[통계청,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이 삶’ 발표](#)

머니투데이\_2020.09.02.

일  
반

[‘가출 청소년’ 대신 ‘가정 밖 청소년’이라 불러주세요](#)

기독교공보\_2020.08.19.

[‘연소득 대비 집값’ 서울은 12배, 뉴욕·런던보다 월등히 높다](#)

한겨레\_2020.08.30.

[포근한 겨울에 최악의 장마까지... 기상 이변 ‘일상화’ 우려](#)

세계일보\_2020.08.13.

트  
랜  
드

[코로나시대의 유튜브 트렌드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다”](#)

중앙일보\_2020.09.01.

## 넘버즈 칼럼

# 재난 시대와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황해국 목사  
일산 세광교회

## 1. 들어가는 말

세계사를 살펴보면 거대한 재난과 전쟁, 역병 후에는 반드시 대변화가 있었다. A.D. 541년 동로마의 멸망은 페스트의 만연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는데, 이때 만연했던 선페스트(Bubonic plague)는 흑사병(Black Death)이라고도 불렸다. 이때, 동로마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주민 40% 이상이 사망했고 이로 인해 동로마제국이 멸망했다. 14세기의 중세 유럽과 아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에 창궐한 페스트는 당시 인구의 1/4인 7,500만 ~ 1억 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는 곧 노동인구의 감소로 중세유럽의 봉건제도를 흔들고, 교황청의 권위를 떨어뜨려 결국 중세시대를 저물게 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는 하루 확진자가 29만 4천 명에 이르고 확진자가 214개국에서 이미 2,381만 명을 넘었다. 이는 현대사회의 문명을 한순간에 조롱하듯 세계를 강타한 사건이다. 최근 만연한 코로나19도 분명 문명사의 대 전환을 이루는 변곡점이 된다. 최근 한 일간지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변화에 대하여 글로벌 전문가 24인이 앞으로의 세계를 전망했다.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앞으로의 시대는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세계는 필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들은 앞으로 10가지 측면에서 지구촌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탈세계화, 거대정부의 출현, 장기 불황상태의 지속, 유로존의 위기, 중국의 위상변화, 포퓰리즘, 탈 오피스, 악수의 종말, 코로나 세대의 출현, 환경문제의 대두 등이다. 어쩔 수 없는 외부의 거센 변화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방벽과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목회현장은 이미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이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재난 시대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새로운 목회 신학과 패러다임을 가져야 하는가 질문하게 된다.

## 2.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교회의 목회 상황 변화

세계적인 변화에 대한 목회 패러다임 변화는 다음 5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 1) 인간관계의 변화와 목회 상황 변화

코로나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은 사람들 간의 접촉을 제한한다. 이러한 비대면(Un-Tact)은 비대면 예배의 확장과 목회사역이 온라인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감염병 제한 조치가 상향될 때마다 정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게 했다.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목회자나 교인들 모두 대단히 낮은 상황이다. 영상기기의 발달로 온라인 예배가 가능해서 다행이지만 문제는 이 온라인 예배가 어디까지 예배이며, 어디까지 시청인가? 라는 질문에 교인들의 혼란과 어색함, 낯설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예배는 현장 예배도 예배지만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면 같은 예배가 된다. 문제는 오래전에 녹화한 영상을 가져다 놓고 이를 시청했을 때, 이를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이때, 녹화된 예배 현황과 설교와 찬양에 성령이 임하시는가 하는 문제이다.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온라인 예배 전환 시 75%만 예배를 드렸고, 그 나머지 25%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 가운데 54%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어색함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곧 성소이다.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의 개념이 변했다. 영상장비를 통한 온라인 예배도 당연히 예배가 되고 온라인 상에서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곧

성소이다. 그러면 녹화된 예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규정할까 하는 점인데, 감염병으로 인해 모이지 못해서 소수자의 예배자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고 남은 일반 교인들은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스트리밍(Streaming)에 예배를 드린다면 이는 장소는 다르나 같은 시간, 같은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니 전혀 문제가 되거나 어색할 것이 없다. 그리고 녹화된 예배나 설교는 다시 한번 시청하면서 그때, 놓친 말씀이나 은혜의 현장을 상기함으로써 오히려 은혜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대면의 확장은 예배 외에도 설교와 목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선 교인들이 온라인상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어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들은 교회출석자가 10~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주일 현장 예배 중단 교인의 23%는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교인들의 의식변화에 대한 시급한 목회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 온라인 교인의 출석과 교적 관리, 온라인으로 존재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지도와 그들 신앙의 훈련, 대면과 비대면의 지평 융합과 만남,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과 소프트웨어 개발, 장비 준비, 온라인 사역자 개발과 SNS의 활용과 확대 등의 부담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를 잘 준비할 때, 이제는 장소적 개념의 교회를 뛰어넘어 목회의 지경이 장소와 시간을 넘는 가상공간에 이르기까지 더 확대될 것이다.

## 2) 반지성(反知性)과 공적 복음

코로나19 이후, 교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세상에서 기독교를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이러한 이미지는 오래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것이지만 최근 신천지가 보여준 행태나 특정교회나 인사들이 보여준 일탈 행동 등으로 이를 심화시켰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급성장했고,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자신감도 많았다. 그러나 교회는 자기 성공신화와 거짓된 신념과 완고한 틀에 갇혀 변화를 게을리하여 스스로 사회와 분리되어 게토(ghetto)화 되었다. 민족 복음화의 열기와 성장신학으로 성공했던 한국 교회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합리적인 관행이나 금권선거, 재판의 오류, 양극화, 분열과 편 가르기 등으로 이미 복음의 생명력을 많이 상실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가 방역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특정교회가 보여준 일탈 행동과 이를 보도하는 편향된 언론 보도는 기성교회가 반지성이며, 이단교회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 이는 기독교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교회는 종교개혁에 버금가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놓였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성장과 성공신학 위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교회는 성장을 위한 지 교회만의 교육과 훈련을 벗어나 사회와 국가, 일반교육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통전성을 가져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공공성, 곧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공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개혁 정신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성숙과 성화만을 위한 교육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는 우리의 신앙이 가정과 교회만을 위한 교회주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는 공적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넘어 사회질서와 국가를 모두 포함하고 담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이를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한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 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목회 패러다임은 개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반지성을 극복하는 길이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이다. 교회는 종교개혁에 나타난 개혁 정신을 가지고 목회 전 영역에서 패러다임 쉬프트(shift)를 일으켜야 할 것이다.

## 3) 기독교 교육의 장 - 가정의 중요성

그동안 한국 교회는 빠른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부모 세대의 기독교율이 21%인데 비해 청소년의 전도율은 3.8%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는 어느 세대가 무너진 것인가? 수치로는 자녀 세대의 믿음이 무너진 것이지만 실상은 부모 세대의 영성과 믿음이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진짜 땅끝은 내 자녀의 방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코로나 이후, 현대인의 삶의 중심이 직장에서도 가정으로 변했다. 전에는 가정은 2차 환경에 불과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가정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가정이 일과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가정의 다음 세대의 교육 기능이 확대되었다는 좋은 신호이기도 하다. 종교개혁은 가정을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적인 장으로 언급했고, 부모를 자녀의 영혼을 책임지는 제사장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교회는 가정을 영성 훈련의 장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사역들을 개발해야 한다. 단순한 가정 신앙교육을 넘어 다음 세대를 사회와 세상에서 복음의 공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신앙인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신앙적인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해야 한다.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신앙적인 내용물이 없다면 이는 스스로 신앙교육의 장을 버리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교재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하고, 동시에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사역자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자녀들의 교육지를 보면 QR코드나 전자펜만 교재에 터치하면 영상이나 소리, 혹은 각종 백과사전 방식의 자료가 공급된다. 일반교육이 첨단으로 나아 간다면 교회교육과 가정용 기독교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도 새롭게 변신을 해야 하는 것이다.

#### 4) 탈 글로벌(脫 Global) - 선교 전략의 재조정

코로나19 창궐이 가져온 또 하나의 영향은 각 나라의 국경이 차단되고 이동의 제한이 생김으로 인해 일시에 주요 산업에서 생산 차질을 빚은 현상이다. 생산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자 거대 기업의 자동시스템도 정지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나타난 정책이 자국 중심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과 디커플링(Decoupling) 정책이다. 리쇼어링(Reshoring)은 외국에 나간 기업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디커플링(Decoupling)은 한 나라의 경제가 인접 국가나 세계 경제 흐름과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앞으로 자국 중심의 전환경제가 이루어져 탈 글로벌(脫 Global)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국중심주의는 타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의 안전과 사역에 지장을 줄 것이고, 선교사들의 신변 보호가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 세계선교 협의회(KWMA)의 코로나 이후 선교사의 필요 조사에서 응답자 80%의 선교사가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선교사들의 사역이 위축되었다고 했고, 46.8%는 코로나로 물과 식량의 확보가 어려웠다. 또한, 84%는 코로나 이후 치안 상황 악화로 선교지 위험도와 긴장이 증가했다고 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후원이 41.3% 줄었고, 이전에 비해 감소했다는 응답은 80~100%였다. 전염병 감염 시 선교사와 그 가족들에 대한 대책도, 치료도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통제국가일 경우 온라인상으로 선교 보고를 했을 때, 보안상의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이제는 선교 선진국답게 선교사의 파송 수나 대상 국가의 숫자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전략적 선교정책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선교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지금까지의 보여주기식 선교나 한국 교회를 이식하는 선교 전략에 전향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 5) 경제 위기와 자비량 선교(Tent-Making Mission)

코로나19가 소득순환 과정에 미치는 공통적인 충격은 다중충격이다. 금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7.6%, 유로존은 -11.5%, 미국은 -8.5%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치를 보면 코로나의 다중충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로 인한 소비감소는 일자리를 위협하고 경제생산을 위축시키며 결국은 개인파산과 가계적자를 발생시킨다. 이는 연속반응으로 국가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데 결국 교회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한다. 2019년 말 기준 예장 통합 교단 통계에 의하면 미자립 교회가 전체 9,289개 교회 중, 36.82%로 3,420개에 이르고 지난 15년 동안, 1,991개 교회가 증가하는 동안, 자립 대상교회는 1,006개 늘어났다. 지난 2014년 예장 통합 교단의 교회당 평균 교인 수는 327명이었지만 중위 수는 63명이었다. 그리고 100명 이하의 교회가 약 70%가량 된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동반성장 정책에 따라 지원받는 교회는 2,249개 교회였지만 아직 1,200여 개 교회는 노회나 교단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예

배 중단이나 목회사역의 정지는 개 교회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것은 연쇄 고리로 미자립 교회의 지원과 선교비의 경감으로 이어진다. 이는 교회도 경제적인 위기를 만난다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전염병이 다시 창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각 교단 차원에서 미자립 교회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큰 숙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목회자의 자비량 목회 및 선교(Tent-Making Mission)를 위한 직업교육이 검토될 수 있다. 단일 종(種)으로만 가득한 숲을 건강한 숲의 생태계라고 할 수 없듯이 같은 유형으로만 가득한 목회 생태계를 건강한 목회 생태계라고 할 수 없다. 이미 기존 목회에 원목, 교목, 군목, 경목, 선교회 사역, 군선교사 사역 등 다양한 형태의 목회 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목회 유형에 다양한 사역을 위한 직업교육으로 선교형 교회를 준비한다면 이는 선교의 다양화와 목회자의 생활안정, 자립화를 이룰 수 있다. 이는 곧 미래 목회와 동반성장, 미자립 교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길이 된다. 이를 위해 양질의 직업훈련과 다양한 선교형 목회를 위한 교육을 각 신학대학 안에 설치하여 운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 3. 나가는 말

옛말에 도부동 불상위모(道不同 不相爲謀)요 도수이 불행불지(道雖邇 不行不至)라 했다. 이 말은 뜻이 같지 않은 사람과 의논하거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뜻이고, 길이 아무리 가까워도 출발하지 않으면 도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갑작스레 불어닥친 코로나19는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다. 이미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시기로 접어들게 한 것이고, 코로나와 함께(With Covid), 위기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연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필연이 된 것이다. 교회는 지금까지의 목회 패러다임을 고집하고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이를 공유하고 확장 시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뜻을 가진 목회자들이 모여 논의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고, 모든 교회에 유익한 목회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전시에는 사방에서 의병이 일어나 나라를 살린다. 지금은 위기의 때이다. 생존을 위해 시도하고 적용했던 목회 사례와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정리하고 함께 나누고 연구할 때이다. 그 길이 아무리 단순하고 혹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꼭 맞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정착될 것이다. 그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먼저 길을 여는 목회자가 되면 그가 곧 선각자가 된다. 끌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복음을 세우자.

#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1-33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34-58호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 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59-61호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체중 증가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 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이아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트로인, (주)하츠, 한국피스메이커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준상,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병희, 이만민, 이미경, 이완중, 이영선,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현주, 장명희, 장우성, 장병우, 장형철, 정종섭, 정준, 전치영,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가나다순)

##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mailto:jy0113@mhdata.or.kr)

김은선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